

위너·갓세븐·모모랜드·규현...5월 가요계 컴백 러시



지난 4월 방탄소년단으로부터 블랙핑크 트와이스까지 이어진 가요계 컴백 대진은 5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5월에는 대형 아이돌뿐만 아니라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들까지 귀환을 알리며 어느 때보다 음악적

다양성이 넘칠 것 같다. ◆ 위너, 갓세븐, NCT 127...글로벌 보이그룹의 컴백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보이그룹들이 다시 국내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위너가 15일 새 앨범 'WE'로 컴백한다. 타이틀곡 '이예'는 냉정한 이별의 감정이 잘하게 표현된 가사와 리드미컬한 기타 리프, 중독적인 훅이 귀를 사

대형 아이돌·믿고 듣는 보컬리스트들 귀환 치, 규현

로잡는 위너표 여름 댄스곡. 그간 'Really Really' 'Love Me Love Me' 등 흥겨운 음악으로 여름을 책임져 온 위너의 새로운 서머송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다.

갓세븐은 20일 새 앨범 'SPINNING TOP: BETWEEN SECURITY & INSECURITY'를 발매한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 속 회전하는 팬이 점점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은 새 앨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갓세븐은 컴백과 함께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2019 월드 투어에 돌입한다.

북미 투어로 해외 인지도를 쌓고 있는 NCT 127은 24일 네 번째 미니 앨범 'NCT #127 WE ARE SUPERHUMAN'로 돌아온다. 앞서 미국 방송사 ABC 프로그램 '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해 신곡 'Superhuman'의 무대를 최초 공개한 상황. 해외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이들의 모습에 기대감이 쌓인다.

◆ 모모랜드, 오마이걸, EXID, 러블리즈, 5월도 걸그룹 대전

걸그룹 대전도 치열하다. 지난 7일 한국과 베트남에 동시에 발매한 발라드 신곡 '사랑은 너 하나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모모랜드를 시작으로 지난 10일에는 오마이걸이 컴백했다. 오마이걸은 첫 번째 정규앨범 'The Fifth Season'의 타이틀곡 '다섯 번째 계절' (SSFWL)으로 발매 직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더 탄탄해진 팬덤을 입증했다.

EXID는 15일 신곡 'ME&YOU'로 돌아온다. EXID는 멤버 하나와 정화가 전속계약 종료로 소속사를 떠나며 휴식기를 앞두고 있다. 당분간 완전체 활동을 보기 힘들 EXID의 마지막 컴백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러블리즈도 5월 컴백을 확정했다. 러블리즈는 오는 20일 여섯 번째 미니 앨범 'ONCE UPON A TIME'을 발표한다. 이들은 컴백에 앞서 오는 9일부터 자체 예능 리얼리티 '러블리즈 다이어리 시즌6'을 공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귀환을 예약하는 박효신, 다비치, 규현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들도 돌아온다. 먼저 박효신은 지난 7일 새 싱글 'Goodbye'를 발표했다. 'Goodbye'는 8집 정규 앨범을 대표하는 메인 곡 중 하나로 답답함과 깊은 슬픔이 공존하는 폭넓은 감정을 가진 박효신의 풍부한 보컬 역량을 여과 없이 담고있다. 박효신은 'Goodbye' 발매 직후부터 지금까지 음원 차트 1위 자리를 지키며 '음원 킹'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다비치는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다비치는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단독 콘서트 'DAVICHI CONCERT 2018'을 열고 올해 강민경의 첫 솔로 앨범 '강민경 1집'을 발표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10개월 만에 공개하는 완전체 신곡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소집해제한 규현도 이달 새 앨범을 발매한다. 아직 앨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부지런히 앨범을 준비해 이달 중 컴백을 발표한 상황.

규현은 앨범 발표에 앞서 오는 14일 기자회견과 미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다.

'아름다운 세상' 자체 최고 또 경신하며 상승세...4.6%



'아름다운 세상'이 자체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JTBC 금토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은 유료가구 기준 전국 4.0%, 수도권 4.9%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 10일 방송분이 기록한 자체 최고 기록인 4.2%를 다시 경신하는데 성공한 것.

'아름다운 세상' 12회는 진실을 요했다. 신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다희 엄마(최유승)를 만난 인화. "다희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신호는 그날 다희를 만나지 않았어요"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희가 생일날 신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희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박수호(김현희)는 다희가 만난 사람이

당연히 오준석(서동현)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동희(이재인)는 달랐다. 다희의 생일 다음날, "진짜 다희 바랍았어?"라는 친구들에게 웃음을 터트리는 준석을 봤기 때문. 서은주는 형사들에게 또다시 거짓을 말했다. 하필 신호화생 사고추정시간에 후문 앞을 지나고, 시간 공개까지 있는 상황이라 그 시간에 준석과 말싸움을 하다 충동적으로 차를 세웠고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 그리고 이후를 대비해 준석과 말을 맞추려고 했지만, 거짓을 강요하는 엄마를 견디지 못

한 준석이 결국 폭발했다. 아빠에게 기죽어 사는 엄마가 불쌍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준석. "신호네 집에 가면 모든 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편했어. 신호도 그랬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편한 아이. 그래서 신호가 좋았고 그래서 부러웠어. 그래서 미웠다"며, 자격자심에서 비롯된 일을 모두 신호 탓으로 돌렸다. 신호가 먼저 자존심을 뚫었고, 친구 사이의 서열을 어겨 경고를 했을 뿐이라는 것. 은주에게 충격을 안기고 집을 나간 준석은 노숙자를 이용해 술을 사려다가 한동수(서영주)를 만났다. 달래기도 해보고, 화도 내본 동수는 "밥은 먹었냐"며 준석을 편의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잠이 든 눈물을 터트린 준석은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다시 길을 헤매고 있는 준석을 발견한 사람은 준호였다.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붙잡는 준호를 뿌리친 준석은 갑작스레 차도로 뛰어든다. 준석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준석을 찾아다니다 인화의 집 앞까지 향한 은주. "이미 망가지고 있어. 너도 준석이라도 이미 무너지고 있어"라는 인화의 말을 듣고, "우리 준석이 아무 문제없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다. 한편, 무진에게 진표가 등장하자 자신을 괴롭혔던 악연이 있어 신호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고백한 최기자(최덕문). 평소 대길을 수상쩍게

여기던 그는 대길을 미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사라진 학교 CCTV도 업체 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짐작했다. 아나나 다들까,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진표가 붙여놓은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아낸 대길. 고민 끝에 무진에게 진화를 걸었고, "드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라며, 사고 당일 대길에 대해 모두 말하려 했다. 그 순간, 대길을 향해 트럭이 돌진했고 순식간에 대길을 덮쳤다. 핸드폰 속에서 자동차 충돌 굉음을 들은 무진의 희망과 기대는 불감함으로 변하고 말았다. '아름다운 세상'은 매주 금, 토 오후 11시 방송한다.

'불후의 명곡' 스바스바 우승...환상의 하모니 선사



스바스바가 '불후의 명곡'을 감동으로 물들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젝트 이카펠라 그룹 스바스바(스윗소로우&비버렛츠)는 지난 11일 오후 방송한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했다. 한동준&유리상자 편에 출연했다. 스바스바는 토크 대기실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우리는 '유희영의 스케치북'에서 만나 유희영의 추천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게 됐다. 현재 우리는 신혼 기간이다"라고 본인들을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즉석에서 최근 발표한 리메이크 싱글 '좋은 텐

데'를 선보여 다른 출연진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를 선곡한 스바스바는 "관객들과 호흡하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이날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시작부터 달콤한 목소리와 이카펠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스바스바. 이들은 감동적인 화음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다. 스바스바의 노래가 끝나고 한동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가슴이 박치오를 정도로 좋은 노래를 들려줘서 고맙다"며 "정말 멋진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오랫동안 노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이어 스바스바는 4연승 중인 밴드 몽니와 우승을 겨루게 됐다. 관객들의 투표가 시작됐고, 스바스바는 423점으로 몽니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첫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감동을 전한 것. 스바스바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다. 오늘 무대를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비버렛츠와 함께 스바스바로 활동 중인 스위트소로우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단독 콘서트 '인사'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음력 4월 9일)



▶**경조**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주변사람들에 의해 빛을 보게 될 수. 7, 10, 12월생 몸과 마음 활기에 차 있지만 금전 용도에 차질이 생겨 어깨가 무거워질 듯. 가족 간에 의견충돌이 예상되니 대화로써 화합할 것. 언행에 주의해야 할 날.



▶**사기** 현실을 바로 보고 냉정할 것. 가, 사, 0성씨 말이나 행동에서 어딘지 모르게 순진한 면을 풍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속일 수 있겠다. 5, 7, 10, 12월생 보종이나 문서 등 도장 찍는 일에 손대면 벗어날 수 없는 일 생길 수 있으니



▶**운명** 후일 무엇이 남겼는가를 생각함이 좋겠다. 세상사 자기 뜻대로 되다면 고민을 왜 하겠는가. 2, 7, 9월생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듯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면 포기하고 새 길을 찾아라. 1, 3, 6월생 검정색 삼갈 것.



▶**경계**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하라는 상대를 타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올바르게 하라. 2, 5, 7, 11월생 만날 때마다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색안경 끼고 있는 사람 있으니 짚고 넘어갈 것. 사랑 때문에 내 것 잃고 있는 줄 왜 모르는가. 남, 서쪽 불길.



▶**운명** 남의 것 겁내지 않고 순대면 빛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챙길 것. 착실하게 노력하고 한 가지 일에 철저하면 그 일로 대성한다. 현실에 만족 못하고 도중하차한다면 인생 낙오자 될 수.



▶**경계** 현 여건에서 도전적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금물. 한 번에 성취하려고 서두르지 말 것. 자존심을 화를 불러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신용 또한 잃게 될 듯. 4, 5, 8, 11월생 끊고 맺음을 소홀히하면 용두사미. 언행 조심.



▶**경계** 지금 생활에 만족을 느끼겠지만 미래저항적인 운수임을 갖고 새롭게 탈바꿈함이 좋겠다. 가, 나, 0성씨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잘못된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도 반성할 것. 1, 3, 5, 9월생 자만심 유의할 것.



▶**경계** 자신의 열등감으로 주위를 의심하다 보니 신경 쓰는 곳이 많구나. 2, 7, 9, 10월생 사랑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새로운 길 찾을 것. 영원한 반역자를 찾아가 가정에 안주함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 것.



▶**운명** 상대의 마음을 못 잡아 방황하는 격. 3, 4, 9월생 이끌리기보다는 의사를 확실히 할 것. 불행이라 힘겨운 상태. 마음이 답답하겠구나. 0, 1, 2, 8성씨 변동하고자 해도 여의치 않고 매매 역시 시기상조이니 좀 더 인내할 것.



▶**경계** 1, 4, 9월생 부부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니 불만만 표현하지 말고 진실로써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줌이 좋겠다. 0, 2, 8성씨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이 소홀함 없이 적극성을 띠면 순풍에 돛탄 듯 순조롭겠다. 의료, 건설업자는 길.



▶**경계** 열심히 뛰지만 생기는 것은 없고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격. 1, 2, 7월생 밖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등한시하다 갈등 겪을 수. 1, 0, 10성씨 여기저기 벌여놓은 일 때문에 바쁘지만 하고 실속이 없는 상태구나.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임이 좋겠다.



▶**경계** 잡으려 말고 날개를 펴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듯. 가, 나, 2성씨 가까운 사람일수록 언행 함부로 하지 말 것.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격. 4, 5, 11월생 건강에 이상이 올 듯하니 내 몸은 스스로 책임이 좋겠다.